



지난 10월12일 '종단 지정 요양시설'에 대한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총무원장 자승스님. 불교신문 자료사진

# '승려 노후복지제도' 본격 시행 5대결사로 불교중흥 행보 박차

2011 총무원/경산

지난 2009년 11월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하는 불교'를 발원하며 출범한 제33대 조계종 집행부가 지난 11월 반환점을 돌았다. 조계종 총무원은 종단 4개년 발전계획으로 제시한 '핵심 및 주요과제'와 '자성과 쇄신 결사'를 수레의 두 바퀴로 삼고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만들기 위한 행보를 올 한해에도 숨 가쁘게 이어갔다.

조계종 총무원이 추진한 2011년 총책사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종단 차원의 본격적인 승려노후복지제도의 시행이다. 종단 차원의 승려노후복지 시행은 출가수행자들이 노후 걱정 없이 수행과 전법에 매진할 수 있는 주춧돌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다. 종단의 넉넉치 않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난 10월부터 65세 이상 무소득, 무소임 스님에게 의료비와 요양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 4월부터는 수행연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전국 각 교구본사별로 승려노후 거주 및 요양시설을 건립, 운영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승려복지회는 수혜 대상자를 점차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12년 종단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승려노후복지금 40억원을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종단 생수사업과 상조사업 수익금의 승려노후복지기금 최우선 사용, 승보공양금 모연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한국불교 세계화와 국제포교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이 전개된 한 해다. 지난 10월 첫 번째 해외특별교구로 '미국

동부해외특별교구'가 출범함으로써 스님 개개인의 원력과 노력이 아닌 종단 차원의 체계적인 해외포교가 가능해졌다. 총무원은 이를 계기로 미국 서부지역과 유럽 등지에도 해외특별교구와 대표부 등을 추가로 설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010년 미국 방문에 이어 2011년에는 프랑스 방문을 통해 사찰음식

첫 해외특별교구 출범  
세계평화 우호증진 위한  
국제협력사업 한층 강화

표준 한글반야심경 공포  
우리말 불교의례 '시동'

과 수행법, 템플스테이, 영산재 등 한국불교문화를 프랑스인들에게 알렸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불교신자 수가 가장 많은 뿐만 아니라 최근들어 케이팝(K-POP)을 통한 한류열풍과 웰빙문화가 확산됨으로써 많은 프랑스인들이 한국불교문화와 전통문화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세계평화와 우호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도 한층 강화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함께 2012년 부처님 탄신지인 네팔 룸비니를 방문, 복원봉사를 구상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와의 만남을 통해 연등회(연등축제) 등 무형의 한국불교문화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협력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태국 수해와 일본 쓰나미 피해지역에 긴급구호단을 파견해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실천하는데도 앞장섰다.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동행하기 위한 행보도 폭넓게 이어졌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매일 어려운 이웃이나 복지시설을 찾아가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감싸 안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취임, 세계평화기도의날 연설 등을 통해 종교간 화합과 대화에도 앞장섰다. 또한 북한을 2차례 방문한 뒤 불교계 대북교류사업의 기조로 '공존'과 '상생'을 제시하며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발원했다.

이와 더불어 한글 반야심경 제정 공포를 시작으로 불교의례의식의 한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사부대중 공동체를 위한 신도 대중공의'를 열어 신도 대표들에게 종단 현황을 설명하고 종단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했다. 종단 신도 대표들에게 종단 현황을 설명하며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한 것은 처음 있었던 일로써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소통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교규제 국가법령 제·개정 활동을 통해 자연공원법 등 법률 제·개정 활동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사찰의 수행환경과 자주권 수호를 위해서는 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 등 추가 제·개정작업이 필수적인 만큼 대선과 총선을 앞둔 2012년에는 불교규제 국가법령 제·개정활동이 더욱 더 활기를 띠 전망이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청와대를 방문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북한을 배려하며 공존과 상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연합뉴스

## "공존상생해야 한다" 총무원장스님, 청와대 간담회서 강조 조계종 대변인 '김정일 사망 애도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애도의 뜻을 표한 뒤 북한과 공존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청와대를 방문한 총무원장 스님은 7대 종교지도자 간담회 자리에서 "지금 이런 사태를 맞아 우리는 당사자로 비상사태이며 주변국은 관심사이고 먼 국가들은 호기심의 대상"이라며 "직접 당사자로서 이런 일을 지혜롭게 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총무원장 스님은 종교계의 역할을 강조한 뒤 '상생'과 '공존'이라는 조계종의 대북기조처럼 남과 북이 상생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우리 사회나 신도, 국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종교계가 역할을 다 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배려하며 공존과 상생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지난 21일 대변인 정만스님(총무원 기획실장) 명의로 애

도문을 발표했다. 대변인 정만스님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세연을 다하신 것(世緣已盡)에 애도의 뜻을 표하며, 깊은 슬픔에 잠긴 북녘 동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애도했다. 이어 "급작스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지속되고 대화와 교류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면서 "우리 민족이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박인택 기자

## 자성과 쇄신, 성공적 안착 '전담' 불교적 관점 ... 실천방법 '과제'

2011 경산/경산

자성과 쇄신 결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반향을 이끌어낸 결사추진본부가 지난 6월 30일 본격 출범했다. 신년기자회견에서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를 천명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전담조직인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초대 본부장에 도법스님을 임명했다.

결사추진본부는 화쟁위원회, 종교평화위원회,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등 종단 행정기구에는 물론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포괄하며 통합업무까지 역할을 수행한다. 총재를 맡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단의 모든 중무행정을 자성과 쇄신 결사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목받았다. 국민과 함께하는 불교, 사회를 일깨우는 불교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결단이다. 총무원장 스님은 결사추진본부 사무실 현판식에서도 "작은 총무원이 되어달라"며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결사추진본부는 집행부 인사로 구성된

상임운영위원회와 함께 각각 원로 및 중진 스님을 모신 자문위원회, 종단 내외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결사위원회 등으로 일가를 꾸렸다. 결사위원회에는 신

'국민과 함께하는 불교, 사회 일깨우는 불교'로 거듭나게 하겠다...서원

도단체와 NGO에서 일하는 재가불자들도 기용됐다. 결사위원들은 출재가를 막론하고 수행과 포교, 불교적 가치 실현과 교단 외호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인물들이다. 또한 수행 나눔 문화 생명 평화 등 5대 결사의 부문별 전문가를 선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결사추진본부 출범 이후 총무원장 스님

과 중앙종무기관 총무원들은 철거민촌 지원방문, 장애인과의 축구경기 등을 통해 나눔결사 실천에 주력했다. 매일 아침 조계사 108배 정진은 일상적인 수행결사로 정착됐다. 결사추진본부는 결사의 근간과 뼈대를 세우기 위한 작업에 매진했다. 결사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대중공사를 수시로 열며 결과물만이 아닌 결사의 과정에도 공을 들였다.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은 결사추진본부가 내놓은 첫 번째 결실이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종교의 존재 이유와 전법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했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의의다. 아울러 '종교평화선언'으로 구체화한 평화결사를 비롯해 수행 나눔 문화 생명 등 5대 결사 전체의 의미도 부처님의 정법에 입각해 조명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사부대중의 진실한 합심과 능동적 실천을 끌어내는 일도 속체로 남았다. 장영섭 기자 fuel@bulgyo.com

# 曹溪宗 元老比丘尼 世主堂 妙嚴明師 49齋 案内

도제양성, 지계청정, 중생제도의 서원을 잊지 마시고 학처럼 높은 기상으로 속히 돌아오소서!

성철스님의 선(禪)과 자운스님의 율(律), 운허스님의 경(經)을 이어받으며 비구니계의 큰어른으로 우리곁에 살다 간 참스승 묘엄명사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추모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 2012년 1월 19일(목), 49재를 모시고자 합니다. 60여 성상(星霜)을 오로지 수행하고, 후학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원력을 다한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스승이셨던 묘엄명사의 생전 뜻을 기리고 유훈을 되새기는 추모와 발원의 자리를 모든 인연있는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 追慕 日程

초재	12월 8일(木) 오전 10시 30분 봉녕사	5재	1월 5일(木) 오전 10시 30분 봉녕사
2재	12월15일(木) 오전 10시 30분 봉녕사	6재	1월12일(木) 오전 10시 30분 봉녕사
3재	12월22일(木) 오전 10시 30분 봉녕사	49재	1월19일(木) 오전 10시 30분 봉녕사
4재	12월29일(木) 오전 10시 30분 봉녕사	●문의 및 연락처 : 031)256-4127(봉녕사)	

임종유훈

"마음공부는 상대적인 부처님을 뵈고 절대적인 나 자신을 찾는 것이다. 자기를 단소하여 인천의 사표되고 생사에 자재하여 중생을 제도하라."

